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개발 및 타당화*

최인재(崔忍在)**

김봉환(金鳳煥)***

황매향(黃梅香)****

허은영(許銀英)*****

논문 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직업과 관련한 현재 상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에 대한 타당화를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에 대한 관심영역을 진로·직업 의식, 경험 및 역량으로 구분하였고, 각 관심영역에 대해 세부영역과 문항을 개발하였다. 먼저 진로·직업 의식의 세부영역은 가치와 태도로 각각 구분하여 문항을 개발하였고, 진로·직업 경험 부분은 교육, 준비행동, 체험으로 세부영역을 구분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진로·직업 역량 부분은 자기이해, 진로·직업 지식,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세부영역을 구분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개발된 지표에 대해 2회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진로·직업 태도와 진로·직업 역량에 대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주요어: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진로·직업 태도, 진로·직업 역량

I. 서론

‘청소년 지표(youth indicators)’의 개발과 이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재 상태와 변동추세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준거로서, 향후 청소년정책수립의 방향설정은 물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인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경인교육대학교 조교수

***** 서울백석중학교 교사

론 청소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주제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 2003년도에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2003년도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지표의 구성 체계 및 개별지표 항목(총 244개)을 산출한 바 있다. 이후 2005년에는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의 결과부문 중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적 역량’, ‘시민적 역량’, ‘직업적 역량’의 다섯 개 영역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2006년도 연구에서는 2005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 발달지표의 결과부문에 대한 타당화 작업과 2004년도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청소년 발달지표를 토대로 각 지표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표개발과정을 통해 확정된 지표체계에 따라 2007년도와 2008년도 조사에서는 배경(9개 지표항목), 투입(9개 지표항목), 과정(54개 지표항목), 결과(11개 지표항목)에 대한 총 83개 지표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였고, 결과부문 5개 영역(정의적, 인지적 특성, 사회적, 시민적, 진로 및 직업적 역량) 총 17개 지표항목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발달지표 체계의 의의와 결과부문 측정도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발달지표에 대한 제한점이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청소년 발달지표의 경우 최초 개발 당시 전통적으로 교육지표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제 분석적 접근법(system analysis approach)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이 접근방법에서는 체제를 투입, 과정, 산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다시 하위영역을 선정한 후 각 하위영역별로 관련지표들을 산출해 내는 방식을 취한다.

청소년 발달지표의 근간이 된 2003년도 청소년 개발지표의 경우 Benson & Satio(2001)의 체제 분석적 접근방법을 청소년 개발의 이론적 개념들로 설정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청소년 개발의 이론적 개념들을 크게 배경부문, 투입부문, 긍정적 발달 촉진요인 그리고 결과부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배경부문에는 청소년 개발의 투입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배치하고, 투입부문에는 프로그램, 조직, 사회화제도, 지역사회 등의 청소년 발달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장(setting)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지표들을 배치하였다. 또한 발달지표의 과정부문에 해당하는 긍정적 발달 촉진요인은 향후 청소년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적 자산(asset)들로서 여기에는 소속감, 연대성, 지지획득, 정체감, 효능감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결과부문은 청소년개발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단기적, 장기적 결과들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체제 분석적 접근법을 근거로 개발된 청소년 발달지표의 경우 청소년 발달지표 체계를 배경, 투입, 과정으로 분류하고 청소년 발달체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하는 목적을 5가지의 측정영역(정의적, 인지적 특성, 사회적, 시민적, 진로 및 직업적 역량)으로 설정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 있는 지표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표체계로 운영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투입→과정→결과로 이어지는 지표 체계에 있어 투입과 결과 간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

도구의 결과부문은 핵심영역 단위별로 청소년의 태도나 의식을 조사하여 측정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영역에 대한 태도나 의식만으로 특정영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청소년 발달지표 결과부문의 시급성, 시의성 및 정책적 활용도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결과부문에 해당되는 지표영역의 경우 청소년 발달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 정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활용도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제한점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책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진로·직업 영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방식인 행정통계 자료를 수집·가공하여 제시하는 객관적 지표 형태가 아니라 개발된 지표항목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주관적 지표를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개발된 지표 변인간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 분석이 가능하며, 지표의 내용 역시 진로·직업 영역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태도나 의식 뿐 아니라 그들의 실제 경험을 포함함으로써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이상적인 발달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청소년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영역인 진로·직업 영역을 다룸으로써 정책적 활용도도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 진로와 직업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이유는 진로와 직업 영역은 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으며(정원식, 198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청소년들의 발달 과정상 달성해야 할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물론 부적응적 행동의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급속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진로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대학입시제도와 대학별 자율화에 따른 다양한 선발 방식에 청소년들이 적응하기 위해서도 진로 및 직업 영역과 관련된 현황과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연구 주제이기 때문이다.

향후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표 자료 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청소년 정책수립과 방향설정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먼저 청소년 진로·직업에 대한 지표 개발을 위해 이와 관련된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교육

지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중심으로 하였고, 분석 내용은 조사 개요, 조사 내용, 시사점 및 제한점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에 대해 문헌검토 및 연구진 회의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과정을 통해 지표체계의 기초 안과 각 지표체계에 대한 구성개념을 마련하였다. 지표체계는 먼저 관심영역으로 진로·직업 의식, 진로·직업 경험, 진로·직업 역량으로 구분하였고, 세부영역으로 진로·직업 의식은 가치와 태도로, 진로·직업 경험은 교육, 준비행동, 체험으로 진로·직업 역량은 자기이해, 진로·직업 지식,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각 영역에 대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1. 청소년 진로 및 직업관련 선행 연구 분석

1)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1) 조사 개요

① 조사 목적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을 반영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있어 각 단계 및 이동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작된 것이 청년패널조사이다(한국고용정보원, 2007).

② 조사 대상

청년패널조사는 표본에 대해 매년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로 만 15~19세의 연령층에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단위 패널조사이다. 청년패널은 2001년 실시된 예비조사에서 청년층 8,296명에 대한 자료 수집을 출발로 2차 조사에서는 1차년도 예비표본 중 5,956명을 패널 원 표본으로 구축하는데 성공하였으며, 2006년 6차 조사에서는 4,5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청년패널조사는 크게 가구용 조사와 개인용 조사로 나누어지며, 개인용 조사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취업자,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조사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개인용 조사의 경우 청년패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중학생의 경우는 4차년도 이후에 조사 대상이 없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도 6차년도 조사에서 2명만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조사 방법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조사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고 그 응답을 기록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구용 설문지의 경우는 가구에 유치하거나 타인이 대리 응답하는 일이 없이 가구주 및 그의 배우자가 반드시 응답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용 설문지는 개별 면접을 기본으로 하고 응답자를 만날 수 없거나 응답을 거부할 때는 설문지를 가구에 유치하여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입하는 방법을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07).

(2) 조사 내용

청년패널조사의 6차년도 설문 중 가구용 설문 문항은 가구의 인적사항, 가구소득 및 주택소유 형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용 설문은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취업자, 미취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내용은 다음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청년패널 6차년도(2006년) 설문내용

구분	설문 내용
고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변화 관련 문항 ○ 사교육, 해외연수 경험, 여가활동 ○ 진로(진로결정 여부, 졸업 후 예상 진로, 희망직업, 직업선택기준) ○ 취업준비(준비시작시기, 취업을 위한 노력, 구직정보 획득 경로 등) ○ 진로지도(상담) 경험 ○ 직업훈련 및 자격증 ○ 아르바이트 경험 ○ 5차 조사 이후 일자리 경험 ○ 개인공통(부모님 현재 직업, 군복무 경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패널 조사의 6차년도 개인용 설문내용 가운데 진로와 관련된 항목은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결정 여부, 졸업 후 예상 진로, 희망직업, 직업선택기준, 취업준비, 진로지도(상담)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청년패널 조사는 조사 대상들의 진로와 관련된 현상들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패널 조사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즉 청년패널조사는 그 특성상 시간의 흐름에 따른 패널들의 진로 관련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학교 급별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로운 지표개발에 있어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지표조사

(1) 조사 개요

① 조사 목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지표조사는 학교현장의 체계적이며 내실 있는 진로교육 촉진을 위해 진로교육 지원체제, 지원 서비스 내용, 그리고 성과 등의 총체적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된 이지연과 정윤경(2006)의 ‘진로교육 지표개발’ 연구를 토대로 학교현장의 진로교육 현황에 관한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오호형, 이지연, 윤형한, 2007).

② 조사 대상

진로교육지표조사는 학교전수조사와 학생표본조사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학교전수조사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등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단위 조사이고, 학생표본조사는 초·중·고등학교 중 학교급별 선정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전수조사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152개교, 중학교 1,892개교, 고등학교 1,471개교, 특수학교 81개교, 전문대학 110개교, 4년제 대학 141개교로서 총 6,847개교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생표본조사의 경우 초등학생 4,565명, 중학생 4,441명, 고등학생 6,972명, 전문대학생 399명, 4년제 대학생 401명으로 총 16,778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③ 조사 방법

진로교육지표조사는 웹기반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학교조사의 경우는 웹기반으로 작성된 설문내용에 대해 해당 학교 진로교육 담당 교사 1인이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대상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1개 학급 전체가 학교 내 컴퓨터실에서 학교 진로교육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집단으로 웹 베이스에 응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2) 조사 내용

진로교육지표조사는 체계접근 분석 모형에 따라 ‘투입(input)-과정(process)-산출(output)’의 각 영역을 학생수준(개인수준), 학교수준(조직수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수준과 관련하여 당초 이지연과 정윤경(2006)의 “진로교육 지표개발”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지표 조사 수준을 국가수준(시·도교육청 수준과 중앙정부 수준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을 포함하여 3가지 차원(국가, 학교, 학생 수준)으로 지표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2007년 조사에서는 국가 수준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개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누가 응답하였는지 파악

이 용이하여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솔직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조사 항목은 <표 2>와 같다.

<표 2> 진로교육지표조사 구성 요소

구분	투입	과정	산출
개인수준 (학생)	○ 학교급별 학생의 특징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내용 ○ 진로정보	○ 진로지도 만족도 ○ 진로개발역량의 함양
학교수준 (각급 학교 및 대학)	○ 진로교육시행계획수립 ○ 전문 진로교육 담당교사의 확보 ○ 진로지도를 위한 시설, 예산, 시간확보	○ 진로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질 관리 ○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 학생의 자기 주도적 진로정 보 축적 지원	○ 진학 및 취업 ○ 진로교육 관련 실적

진로교육지표조사의 경우는 청년패널조사에 비해 진로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과 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로교육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진로교육지표조사의 경우 학교현장의 진로교육 인프라 및 현황 조사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 급별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수준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지표개발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수준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 조사 개요

① 조사 목적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2003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과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2004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잠재적 직업선택·향후 진로설정 및 준비·일탈행위·여가참여 등의 생활실태에 대해 전망적 패널조사의 방법으로 추적 조사하여 종단적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사의 종단적 연구모형은 동일 표본을 세 번 이상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중다 전망적 패널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를 설계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본이 상실될 경우, 표본을 대체하지 않고 횡단적·종단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함을 설계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칙하에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3년(중학교 2학년)부터 2009년(고등학교 3학년 졸업이후 1년차)까지 6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하고,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4년(초등학교 4학년)부터 2009년(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물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6a).

② 조사 대상

초등학교 4학년생 패널의 경우 2004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제주도 제외)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 가운데 표본으로 뽑힌 2,9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6a). 한편 중학교 2학년생 패널의 경우 2003년도 기준, 전국(제주도 제외)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 가운데 표본으로 뽑힌 3,697명의 청소년들 및 학부모들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6b).

③ 조사 방법

청소년의 경우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수(4인)의 면접원을 투입하여 집단별로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부모 대상으로는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내용

전체 조사 내용은 크게 청소년 대상과 학부모 대상으로 구분되는데 청소년 대상을 중심으로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문항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주요 조사 내용

구분	초등학교 4년생 패널(3차년도 기준)	중학교 2년생 패널(4차년도 기준)
직업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성숙도 - 장래 희망직업 선정 여부 - 장래 희망직업 -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성숙도 - 장래 희망직업 및 희망 직업 선정 여부 - 장래 희망직업의 특성 - 희망직업 선택의 중요 요인 - 희망직업생활의 성공 요인 - 희망직업성취의 중요 요인, 필요한 학력 - 희망직업의 주관적 성취 여부 -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직업
향후 진로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원하는 교육수준 - 부모님이 원하는 교육수준 - 향후 진로 설정 관련 부모님과의 대화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진로 설정 - 향후 진로 설정과 관련된 생각 - 진로성숙도 - 학생이 원하는 교육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이 원하는 교육수준 · 부모님과과의 향후 진로 대화 여부 · 향후 진로 설정의 계기
진로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 학교 수업 참여 · 사교육 참여 · 개인 공부 · 수상 및 자격증 취득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 학교 수업 참여 · 사교육 참여 · 개인 공부 · 수상 및 자격증 취득 경력 · 진로준비 활동 ·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 아르바이트 직종, 참여 실태, 참여 이유 · 아르바이트 구직 기준 ·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대우 경험 정도 ·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 작성여부 · 아르바이트 경험의 미래직업생활 도움 여부 · 아르바이트의 효과

조사 내용 가운데 진로에 대한 인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조사 항목을 보면 직업선택, 향후 진로설정, 이를 위한 진로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발달 단계상 자기탐색과 직업탐색, 진로준비 활동 등이 구체화되고 다양해지는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이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보다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조사 내용을 보면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있어 청소년의 인식과 활동 그 자체의 상황(예: 학교 수업에 참여했는지 여부, 사교육 참여 여부,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패널조사의 특성상 청소년의 성장 및 학령기 변화에 따라 진로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학교나 여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에 대한 청소년의 기대수준, 만족도, 체감하는 도움 정도 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또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관련된 내용만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 제반 진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새로운 지표개발에 있어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구성개념

지표개발의 기본 방향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바탕으로 청소년 진로와 관련된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 진로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 문헌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

진 회의를 통해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후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지표체계의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구성개념은 진로·직업 의식, 진로·직업 경험, 진로·직업 역량으로 대별된다.

1) 진로·직업 의식

진로·직업 의식이란 한 개인이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와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직업 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진로·직업 가치와 진로·직업 태도로 대별할 수 있다. 가치관이란 개인이 특정상황에서 선택이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원리나 믿음, 또는 신념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진로·직업 가치란 한 개인이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은 청소년들이 향후에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경우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의 성공요인을 무엇으로 예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직업에서의 성공요인을 내적으로 귀인 하는지 아니면 외적으로 귀인 하는지에 따라 직업생활에 대한 태도와 자기개발에 대한 노력 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지표에서는 진로·직업 의식에 대해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와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가치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본 지표에 포함된 진로·직업 태도는 진로성숙도 중에서 태도영역을 말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진로성숙이란 일반적으로 자아의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지표에서는 진로·직업에 대한 태도를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등 4개의 하위요소 구성하였다.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한 정도,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차원을 의미한다. 확신성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을 의미한다. 준비성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정도, 그리고 진로에 대한 관심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능력을 나타내는 차원을 의미한다.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가를 나타내는 차원을 뜻한다.

2) 진로·직업 경험

진로·직업 경험이란 개인이 자신의 진로 및 직업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경험과 체험들을 총칭한다. 여기에는 진로·직업 교육, 진로·직업 준비, 진로·직업 체험 등이 포함된다. 먼저 진로·직업 교육은 학교, 가정 및 기관 등에서 진로의식 함양과 진로준비 등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적 경험들을 의미한다. 본 지표에서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 및 만족도,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 관련 경험 및 만족도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진로·직업 준비(행동) 영역인데, 김봉환(1997)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로분야의 필수적인 한 가지 탐구영역으로서 '진로준비행동'이라는 구인을 설정하고 이것을 측정하는 도구를 제작하여 연구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라는 구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에 의하면 '진로준비행동'이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처럼 진로준비행동이란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왔던 인지나 정서의 차원이 아닌,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진로·직업 체험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위 요소로 구성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용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얻은 수입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여가비용에 보태기도 한다. 하지만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르바이트는 일종의 직업체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진로교육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하면 자신의 진로 체험의 하나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지표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중요한 진로·직업 체험의 지표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3) 진로·직업 역량

진로·직업 역량이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며 결정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능력을 의미한다. 본 지표에서는 진로·직업 역량을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의미하는 '자기이해'와 진로·직업의 정보, 직무, 일의 특성, 직업전망 및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뜻하는 '진로·직업지식' 그리고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 여부의 정도를 의미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등 총 세 가지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진로·직업 역량은 진로교육의 목표 혹은 진로개발 역량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그 연구를 수행한 주체에 따라 항상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거나 기존의 것들이 삭제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어왔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진로교육의 목표 또는 개발 역량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국

내의 선행 논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검토 결과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종합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항상 새로운 범주화가 발생한다. 즉 요소가 속한 상위 영역의 위치를 바꾸거나, 하위 요소를 통합하는 일들이 반복된다. 최동선(2006)은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자신의 이해, 직업세계의 이해 및 탐색, 진로계획 및 관리라는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한편, 7차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영역을 ‘나의 이해와 진로’, ‘진로의 탐색’, ‘진로의사결정’, ‘진로계획 및 준비’로 영역을 구분하여 각 영역에 대한 요소를 제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하위 요소들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간의 합의를 거쳐서 제시된 국가적 수준의 공식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가 진행될 때 마다, 요소와 영역이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가운데, 순서가 바뀌고 정렬이 새롭게 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수준의 합의된 진로개발 역량의 하위 요소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임언 등(2008)은 기존의 진로개발 역량의 하위 요소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 31인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진로개발 역량의 하위 요소를 ‘개인적·사회적 발달’, ‘진로 관리’, ‘교육적 성취 및 평생학습’으로 구분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주요 선행 자료인 최동선(2006)이 제시한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요소와 미국 NCDG를 기초로 하여 초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기와 같이 진로개발 역량의 하위 요소를 추출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타당화를 위해 먼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진로 및 직업 관련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2009년 4월 17일부터 5월 18일에 걸쳐 2회에 걸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방식의 의견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한 10명 이상의 패널로 구성되어야 하며, 델파이 집단의 크기가 13명 보다 클 때 신뢰성이 0.80 이상이 된다((Murry & Hammons, 1995).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교수 6명, 진로관련전문가 3명, 통계담당공무원 2명, 진로상담교사 2명 등 총 13명으로 의견조사 대상자를 구성하였다. 의견조사 방식은 진로관련 전문가들에게 본 연구의 참여를 의뢰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e-mail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후 척도 형식으로 구성된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 및 진로·직업 역량 측정도구에 대한 구성타

당도 검증을 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부산과 대전에 소재하는 21개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682명(남학생: 375명, 여학생: 307명)의 학생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요인구조가 다른 독립적인 집단에도 적용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과 대구에 소재하는 30개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763명(남학생: 372명, 여학생: 39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교차 타당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설문지는 조사자가 직접 교실에 들어가서 설문지의 필요성과 목적, 응답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를 직접 배포·수거하였다. 설문지는 2009년도 5월~6월 사이에 실시되었고, 설문지 실시 시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2.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개발 과정으로 먼저 진로·직업 관련 문헌검토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기초 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2차에 걸쳐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지표 영역과 문항들을 수정하거나 조정함으로써 모든 하위영역과 각 문항들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설문지는 ‘매우 타당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타당하다(5점)’까지 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후 진로·직업 태도와 진로·직업 역량 척도에 대한 구성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4개 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설문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구성타당도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리고 연구진 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자료 처리는 SPSS 17.0과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체계 및 지표 타당화

1) 1차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¹⁾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기초안에 대해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3명의 의견조사 대상자 모

1)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및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중 세부문항에 대한 통계치 결과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음.

두 응답하여 100%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응답지를 근거로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관심영역, 세부영역, 하위요소 및 하위요소별 문항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4개 관심영역 모두 평균 4.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중위수, 최빈값, 사분범위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4.0 이상의 응답을 보인 긍정적 응답률이 75% 이상을 채택하는 방식(Murry & Hammons, 1995)에 근거해 볼 때 모든 관심영역이 이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또한 전문가들 간의 의견 일치도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편차에서도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으로 표준편차가 전체 응답범위의 20%보다 크지 않으면 그 문항의 의견일치도가 높다(고재성, 2006)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관심영역에서 표준편차가 0.8 미만으로 나타났다.

세부영역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에서도 9개의 각 하위영역 모두 중위수, 최빈값, 사분범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통계에서 모든 영역에서 평균점수가 4.0 이상의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응답률이 모두 75% 이상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도 모두 0.8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요소 중 1-1-3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일의 상대적 가치, 1-1-5 직업위신 등은 기준치 범위를 벗어나 삭제하였고, 2-3 진로·직업 체험 영역의 경우 전문가 의견과 연구진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하나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지표의 하위요소가 기준치 범위 내에 속한다 하더라도 하위요소의 각 문항이 기준치를 벗어나거나 다른 하위요소 내용과 유사중복 되는 요소인 1-1-2 직업관, 1-2-2의 목적성 요소는 삭제하였다.

또한 2-1 진로·직업 교육 영역에 2-1-4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 경험 및 만족도 요소를 추가 하였으며, 하위요소에 해당하는 각 문항은 전문가 의견과 연구진 회의를 통해 추가로 제시하였다. 1차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수정된 주요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수정된 내용

관심영역	세부영역	하위요소
1 진로·직업 의식	1-1 진로·직업가치	1-1-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
		1-1-2 직업관 ▶ 삭제
		1-1-3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 일의 상대적 가치 ▶ 삭제
		1-1-4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1-1-5 직업위신 ▶ 삭제
	1-2 진로·직업 태도	1-2-1 결정성(진로방향의 확고한 정도)
		1-2-2 목적성(사회적 인정 추구의 정도) ▶ 삭제
		1-2-3 확신성(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
		1-2-4 준비성(진로결정에 대한 준비의 정도)
		1-2-5 독립성(진로문제에 대한 주체적 결정 정도)

2 진로·직업 경험	2-1 진로·직업 교육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	
		2-1-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	
		2-1-3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 및 만족도	
		◆ 2-1-4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 관련 경험 및 만족도 ▷ 추가	
	2-2 진로·직업 준비	2-2-1 진로준비행동(진로선택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실행 정도)	
3 진로·직업 역량	2-3 진로·직업 체험	2-3-1 근로 경험 유무	2-3-1로 통합
		2-3-2 일의 종류	
		2-3-3 일의 내용	
		2-3-4 근로 경험에 대한 일반적 사항	
	◆ 4개(2.3.1~2.3.4)의 하위요소를 아르바이트 체험(근로 경험 유무, 종류, 내용 및 일반적 사항 등) 1개의 하위요소로 통합		
3-1 자기이해	3-1-1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		
3-2 진로·직업 지식	3-2-1 진로·직업의 정보, 직무, 일의 특성, 직업전망 및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		
3-3 합리적 의사결정	3-3-1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 여부의 정도		

2)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영역별 2차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결과

①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관심영역별 분석결과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에 대한 2차 전문가 의견조사의 경우 1차 의견조사와 같이 13명의 의견조사 대상자 모두 배부된 의견조사에 응답하여 100% 회수율을 보였다. 2차 전문가 의견조사지 구성 방식은 먼저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타당도 기준치 범위를 벗어난 것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회신한 의견과 연구진 회의를 통해 각 영역과 문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4가지 관심영역에 대한 2차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차 의견조사 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 즉 중위수, 최빈값 모두 5점을 나타냈고, 평균 점수도 4.5 이상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전문가간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 점수도 1차 조사 때 보다 모두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전문가 간 의견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영역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는 다음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에 대한 “관심영역”의 타당성 분석결과

영역	관심영역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평균	표준편차	긍정률	중위수	최빈값	사분범위
청소년 진로·직업 영역	1. 진로·직업 의식	4.69	0.480	100	5	5	4~5
	2. 진로·직업 경험	4.62	0.506	100	5	5	4~5
	3. 진로·직업 역량	4.54	0.519	100	5	5	4~5

②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세부영역별 분석결과

세부영역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6>와 같다. 9개의 각 하위영역 모두 관심영역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보다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4.0 이상의 응답을 보인 긍정적 응답률이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도 모두 기준치인 0.80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어 세부영역에 대한 전문가들 간의 의견일치도가 높았다.

<표 6> 각 관심영역에 대한 “세부영역”의 타당성 분석결과

관심영역	세부영역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평균	표준편차	긍정률	중위수	최빈값	사분범위
1. 진로·직업 의식	1.1 진로·직업 가치	4.62	0.506	100	5	5	4~5
	1.2 진로·직업 태도	4.31	0.630	92.3	4	4	4~5
2. 진로·직업 경험	2.1 진로·직업 교육	4.54	0.519	100	5	5	4~5
	2.2 진로·직업 준비	4.38	0.650	92.3	4	4	4~5
	2.3 진로·직업 체험	4.62	0.506	100	5	5	4~5
3. 진로·직업 역량	3.1 자기이해	4.62	0.506	100	5	5	4~5
	3.2 진로·직업 지식	4.54	0.660	92.3	5	5	4~5
	3.3 합리적 의사결정	4.62	0.506	100	5	5	4~5

③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각 하위요소별 분석결과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각 하위요소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각 하위요소별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구성은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타당성에 문제가 되었던 요소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회수된 의견조사에 대한 분석결과 긍정률이 모두 90% 이상을 보였고, 평균과 표준편차 역시 기준치 범위 안에 속해 타당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7> 각 세부영역에 대한 “하위요소”의 타당성 분석결과

세부영역	고유 번호	하위요소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중앙치	최빈값	사분 범위
1-1 진로·직업 가치	1-1-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	4.54	0.519	100	5	5	4~5
	1-1-2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4.62	0.506	100	5	5	4~5
1-2 진로·직업 태도	1-2-1	결정성	4.31	0.630	92.3	4	4	4~5
	1-2-2	확신성	4.38	0.650	92.3	4	4	4~5
	1-2-3	준비성	4.38	0.650	92.3	4	4	4~5
	1-2-4	독립성	4.46	0.660	92.3	5	5	4~5
2-1 진로·직업 교육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형태 및 만족도	4.38	0.506	100	4	4	4~5
	2-1-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관련 요구도	4.46	0.519	100	4	4	4~5
	2-1-3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경험 및 만족도	4.62	0.506	100	5	5	4~5
	2-1-4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 관련 경험 및 만족도	4.31	0.630	92.3	4	4	4~5
2-2 진로·직업 준비	2-2-1	진로준비행동	4.23	0.439	100	4	4	4~5
2-3 진로·직업 체험	2-3-1	아르바이트 체험	4.31	0.630	92.3	4	4	4~5
3-1 자기이해	3-1-1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	4.46	0.519	100	4	4	4~5
3-2 진로·직업 지식	3-2-1	진로·직업의 정보, 직무, 일의특성, 직업전망 및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	4.62	0.506	100	5	5	4~5
3-3 합리적 의사결정	3-3-1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 여부의 정도	4.62	0.506	100	5	5	4~5

④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각 하위요소에 대한 문항별 분석결과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문항별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구성은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통계수치가 낮은 문항(평균 4.0 미만, 긍정률 75% 미만)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일치가 낮은 문항(표준편차 0.80 이상)들에 대해서 해당 문항을 삭제하거나 문항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각 하위요소의 세부문항에 대한 타당도 분석결과 모든 문항에서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긍정률이 기준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 및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구성타당도 검증

①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에 대한 판단은 고유치(eigenvalue), 누적설명변량비율, 스크리 검사(scree test), 공통성(communality), 해석가능성 등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은 주축요인분석법(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과 요인간의 상관을 가정한 사교회전(oblique rotation)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료에 대한 표본적절성 측정치인 KMO값(Kaiser-Meyer-Olkin Measure; Kaiser, 1974)은 .71로 적당한 값을 보였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증(sphericity test)에서도 유의수준이 두 척도 모두 작아서($p < .001$) 자료의 상관이 요인분석 될 만큼 적절한 수준을 보였다(양병화, 1998).

요인분석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요인이 4개 나왔고, 스크리 검사결과 및 해석가능성을 고려할 때 4개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요인수를 4개로 지정한 후,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의 요인부하계수가 모두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 1은 진로방향의 확고한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명을 '결정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진로결정에 대한 준비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명을 '준비성'이라 명명하였다. 또한 요인 3은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신성'이라고 요인명을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4는 진로문제에 대한 주체적 결정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며, '독립성'이라 명명하였다.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에 대한 요인구조의 경우 요인 1은 전체변량의 26.88%를 설명하였고, 고유치는 3.05로 나타났다. 요인 2는 15.55%의 설명변량과 1.99의 고유치를 나타냈다. 또한 요인 3은 11.29%의 설명변량과, 1.53의 고유치를 보였고, 요인 4는 6.02%의 설명량과 1.07의 고유치를 나타냈다. 이들 4개의 요인은 진로·직업 태도에 대한 전체변량의 총 59.74%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진로·직업 태도와 같은 방식으로 요인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자료에 대한 표본적절성 측정치인 KMO값(Kaiser-Meyer-Olkin Measure; Kaiser, 1974)은 .960로 매우 좋은 값을 나타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sphericity test)에서도 유의수준이 두 척도 모두 작아서($p < .001$) 자료의 상관이 요인분석 될 만큼 적절하였다.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에 대한 요인분석과 마찬가지로 요인에 대한 판단은 고유치, 누적설명변량비율, 스크리 검사, 공통성(communality), 해석가능성 등의 기준을 함께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요인이 총 5개 나왔으나, 스크리 검사결과 및 해석가능성을 고려할 때 3개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한 후,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의 요인부하계수가 모두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요인 1의 문항들은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의 여부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예컨대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1에 대한 요인명은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진로·직업의 정보, 직무, 일의 특성, 직업전망 및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예: 일의 내용, 수입,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알고 있다”,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2에 대한 요인명은 ‘진로·직업 지식’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이해’라고 요인명을 명명하였다.

청소년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요인구조의 경우 요인 1은 전체변량의 49.50%를 설명하였고, 고유치는 10.78이었다. 요인 2는 8.01%의 설명변량과 2.06의 고유치를 나타냈다. 또한 요인 3은 3.19%의 설명변량과, 1.04의 고유치를 보였다. 이들 3개의 요인은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전체변량의 총 60.70%를 설명하였다.

<표 8>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의 요인구조와 문항내용(N=397)

문항 번호	문항내용	요인			
		1	2	3	4
2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937			
1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889			
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699			
7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786		
6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734		
8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628		
5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745	
4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744	
10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751
9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권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683
	고 유 치	3.05	1.99	1.53	1.07
	설명변량(%)	26.88	15.55	11.29	6.02
	누적변량(%)	26.88	42.43	53.72	59.74

<표 9> 청소년 진로·직업 역량의 요인구조와 문항내용(N=397)

문항 번호	문항내용	요인		
		1	2	3
16	직업에 대하여 알아 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볼 것이다	.827		
17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817		
20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802		
15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796		
19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778		
12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745		
13	진로결정에 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것이다	.723		
18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709		
21	진로결정에 관하여 가족갈등이 생겼을 때 잘 타협하여 결정할 것이다	.671		
14	내가 처한 현실(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636		
8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832	
5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828	
7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815	
6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		.813	
9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758	
10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예: 일의 내용, 수입,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알고 있다		.736	
11	내가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다		.724	
2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830
1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792
4	내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735
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조건(명예, 보수, 봉사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676
	고 유 치	10.78	2.06	1.04
	설명변량(%)	49.50	8.01	3.19
	누적변량(%)	49.50	57.52	60.70

②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진로·직업 태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alpha 값을 보면, 요인 1 결정성은 .87, 요인 2 준비성은 .75, 요인 3 확신성 .71, 요인 4 독립성 .67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내적 합치도를 보면, 요인 1 합리적 의사결정 .93, 요인 2 진로·직업 지식 .92, 요인 3 자기이해 .87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③ 확인적 요인분석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 및 진로·직업 역량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판별 및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밝혀진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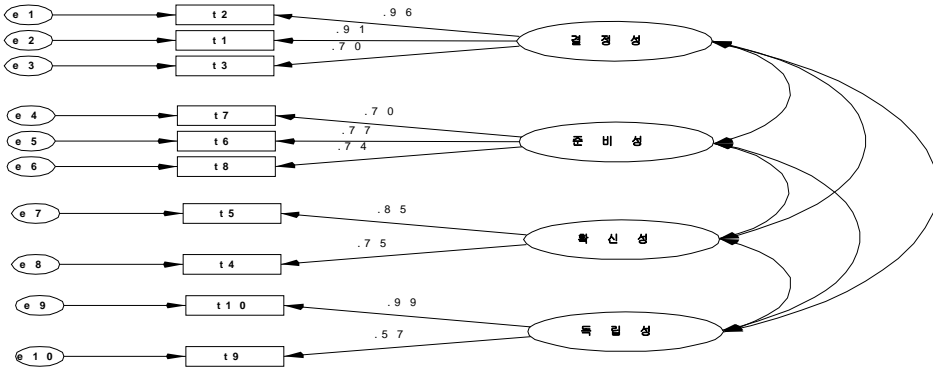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적합도 지수(goodness-of-fit)는 다음과 같다. 먼저 Tucker-Lewis Index(TLI)와 Comparative Fit Index(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등을 모형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한 이유는 카이제곱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Tucker-Lewis Index(TLI 또는 NNFI, Bentler & Bonett, 1980)와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Steiger & Lind, 1980) 등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오류를 측정하는 Comparative Fit Index(CFI, Bentler, 1990)를 적합도지수로 사용하였다.

TLI(또는 NNFI), CFI는 대략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홍세희, 2000)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는 RMSEA<.05 이면 좋은 적합도, RMSEA<.08 이면 괜찮은 적합도, RMSEA<.10 이면 보통적합도, RMSEA>.10 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 및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 및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측정모형이며, 각 요인별 문항에 대한 표준화 계수를 나타낸 결과이다. 다음으로 <표 10>은 진로·직업 태도 및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낸 결과이다.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CFI .972, TLI .957, RMSEA .06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모형 적합도 지수는 각각 CFI .931, TLI .922, RMSEA .072로 나타나 진로·직업 태도 및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척도 모두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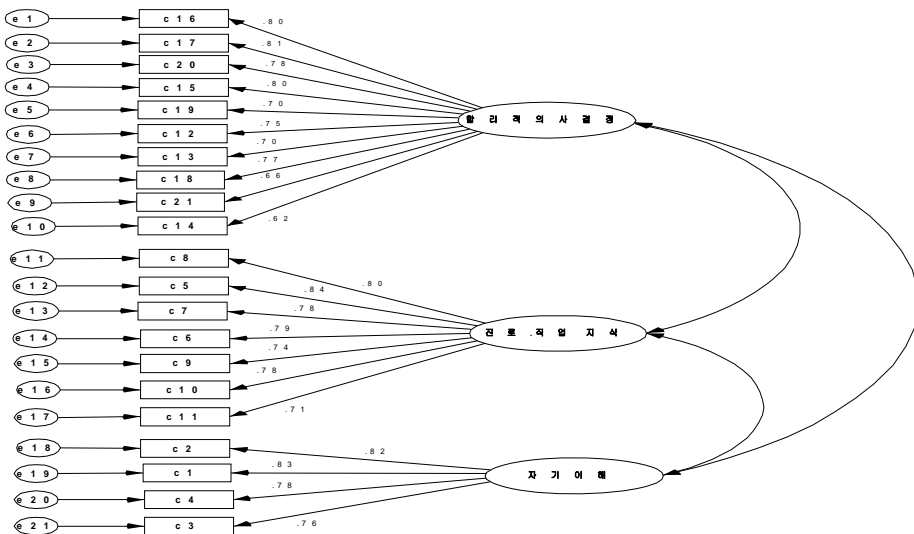
<표 10> 진로·직업 태도 및 진로·직업 역량 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CFI	TLI	RMSEA(90%신뢰구간)
진로·직업 태도	119.139	29	.972	.957	.064(.052-.076)
진로·직업 역량	914.864	186	.931	.922	.072(.067-.076)



주. 표준화 계수는 모두 $***p<.001$

[그림 1]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의 측정모형



주. 표준화 계수는 모두 $***p<.001$

[그림 2] 청소년 진로·직업 역량의 측정모형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직업과 관련한 현재 상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에 대한 타당화를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진로·직업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과 경험 그리고 역량으로 관심영역을 구분하였고, 각 관심영역에 대해

세부영역과 문항을 개발하였다. 먼저 진로·직업 의식의 세부영역은 가치와 태도로 각각 구분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진로·직업 경험 부분은 교육, 준비행동, 체험으로 세부영역을 구분하여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진로·직업 역량 부분은 자기이해, 진로·직업 지식,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세부영역을 구분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개발된 지표에 대해 2회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진로·직업 태도와 진로·직업 역량에 대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에 대한 1차안에서 일부 적절하지 않은 요소와 문항들이 발견되어 해당요소와 문항을 삭제하거나 수정 및 조정 작업 과정을 거쳤다. 이후 수정된 지표 안에 대해 2차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심영역을 비롯한 세부영역과 하위문항들이 모두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진로·직업 태도와 진로·직업 역량에 대해서는 구성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진로·직업 태도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각 요인에 대한 요인명은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그리고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자기이해, 진로·직업 지식,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요인명을 명명하였다. 이후 교차 타당화를 위해 다른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위 2개의 척도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개의 척도 모두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정책 수립은 무엇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수립·추진되어야 하며,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 진로 및 직업 영역과 관련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객관적 지표와 같이 서로 다른 대상으로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된 행정통계 자료를 가공하여 제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발된 지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대상에게 직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표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나, 객관적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고 각 지표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둘째, 이 지표의 경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기본법 기준으로 9세부터 24세로 볼 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학생들 일부도 포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으로 첫째, 지표조사는 동일한 지표의 수준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시계열적으로 동일한 지표의 수준이 개선되었는지 혹은 악화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표체계의 안정성과 조사의 지속성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진로 및 직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재성 (2006). 대학 진로서비스 평가준거 개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교육인적자원부 (2007). **고등학교 교육과정**(별책 4). 교육인적자원부.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양병화 (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오호형, 이지연, 윤희한 (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 정윤경 (2006). **청소년 진로교육 지표개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장명희, 정연순, 장석민 (2008).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 운영 모델 구축**.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원식 (1985). **청소년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최동선 (2006).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고용정보원 (2007). **청년패널 종합분석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사이버 상담을 통한 효과적인 진학/진로상담 모형개발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한국 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6a).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초4 패널 1-3차년도 User's Guide**.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6b).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 패널 1-4차년도 User's Guide**.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8.
- Benson, P. L., & Satio, R. N. (2001). The scientific foundations of youth development. In P. L. Benson and K. J. Pittman (Eds.), *Trends in youth development: Vision, realities and challenges* (pp.135-154). Norwell, Massachusett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 31-36.
- Murry, Jr. J.W. & Hammons, J. O. (1995). Delphi: A versatile methodology for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18(4), 423-436.
- Steiger, J. H., & Lind, J. M. (1980). *Statistically based tests for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sychometric Society, Iowa City, IA.

* 논문접수 2011년 4월 26일 / 1차 심사 2011년 5월 25일 / 2차 심사 2011년 7월 29일 / 게재승인 2011년 8월 27일

* 최인재(崔忍在, Choi, InJae): 중앙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청소년 심리 및 상담, 부모자녀관계, 청소년 통계 등이다.

* E-mail : jae713@nypi.re.kr

* 김봉환(金鳳煥, Kim, BongWhan): 공주사범대학 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 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저서로는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학교진로상담' 등이 있다.

* E-mail : bongwhan@sm.ac.kr

* 황매향(黃梅香, Hwang, MaeHyang):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와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상담과 심리검사(공저)',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학업상담', '초등교사를 위한 문제행동 상담 길잡이(공저)', '초등교사를 위한 다문화상담 길잡이(공저)' 등이 있다.

* E-mail : maehyang@ginue.ac.kr

* 허은영(許銀英, Heo, EunYeong):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백석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주요저서로는 '우리반 집단상담(공저)', '진로와 직업(공저)' 등이 있다.

* E-mail : hey4194@daum.net

Abstrac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dicators of Korean Adolescent's Career and Vocational Development

Choi, InJae*

Kim, BongWhan**

Hwang, MaeHyang***

Heo, EunYeong****

This study aims to develop indicators of Korean adolescent's career and vocational development. To achieve this goal, the regions of interest about adolescents career and vocation were classified into the career and vocational consciousness, experience and competence, and detail areas and items about each region of interest were developed. First, the details areas of the career and vocational consciousness were divided into the career and vocational values and career and vocational attitudes and then the items were developed. The details areas of the career and vocational experience were divided into the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preparation behaviors for future career and vocation, and career and vocational experiences and then the items were developed. In addition, the details areas of the career and vocational competency were divided into self-understanding, career and vocational knowledge, and rational decision and also the items were developed. After that, the contents validity about the developed indicators was secured through two times of experts opinions, and the constructive validities of the career and vocational attitude and the career and vocational competency were verified through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Key words: adolescents career and vocational indicators, career and vocational attitude, career and vocational competence

* Research Fellow,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Teacher, Seoul Beck-Seok Middle School